

알라는 누구인가?

‘알라’라는 단어는 아랍어 음역어로,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도 아랍인들은 유일하고 지고한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알라를 숭배하면서도 다른 우상들도 함께 숭배했습니다.

모든 인류—무슬림이든 아니든—건전한 이성과 논리를 통해 알라의 존재와 그 속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행위자가 있고,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은 없으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생명체든 무생물이든, 정지한 것이든 움직이는 것이든—모두 무(無)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이 우주에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그 이름이 ‘알라’이든, ‘창조주 (Creator)’이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존재’이든, 그 명칭과 무관하게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 작품을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은 그 저자의 지식, 경험, 문화, 분석력, 사상,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공예품은 제작자의 성격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 우주의 만물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창조주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자연의 아름다움, 세포의 정교함과 그 속에 드러난 지혜, 우주의 균형과 질서, 인간이 지닌 지식...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위대함과 지식, 지혜를 증명합니다.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있든 없든, 삶의 고통과 시련의 철학을 이해하든 못하든, 이성과 논리가 이끄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전지하며, 지혜로 가득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창조주를 ‘알라’라고 부릅니다.